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7,145원 …
최저임금보다 1,115원 ↑

ZOOM IN

- 서울시, 사물인터넷 (IoT) 창작자를 위한 메이커 공간 개소
- 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고위험층 찾아가는 피해상담실 운영

HOT ISSUE

- 서울시, 12월까지 서울 곳곳에서 사회적경제 장터 개최
- 한강의 밤이 달라진다 … 10월 한 달간 주말 야시장 개장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김가영 gykim@seoul.go.kr

FOCUS | 01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7,145원... 최저임금보다 1,115원 ↑

서울시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6,030원)보다 1,115원(18.5%) 많은 금액이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6,687원)보다 458원(6.8%)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 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 3,305원이며, 여기에는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제외한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밝힌 2016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로 추정된 인원은 약 1,260명이며 주로 서울시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다. 최종 적용 인원은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
빈곤기준 상향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

이번에 발표한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 지출 모델'과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한편, 3인 가구 지출 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0%에서 52%로 2%p 상향하여 결정했다.

서울시는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이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에서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3인 가구 지출 값의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법적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간접고용 분야(용역, 민간위탁 등)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더불어 민간과 적용 가능분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IoT) 창작자를 위한 메이커 공간 개소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분야의 창의적인 '메이커' 양성을 위한 디지털 공공대장간 「성수 메이커 스페이스」가 9월 말 문을 열었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환경이다.

**328㎡ 규모, IoT관련
제작·교육,
3D프린터·CNC조각기 등
디지털장비 50여종 보유**

성수IT종합센터 2층에 자리잡은 「성수 메이커 스페이스」는 328㎡ 규모로, △다목적홀 △대형기기실 △협업공간 등 DIY(Do It Yourself) 오픈 플랫폼 기반 장비 및 창작공간으로 구성된다.



80명까지 수용 가능한 다목적홀에서는 사물인터넷 관련 제작·교육·해커톤 등이 이루어지며, 대형기기실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형디지털제작 장비를 비롯해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에 필요한 5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창업 희망 시 공간 및
사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혁신적
IoT 창업가 요람으로
조성**

서울시는 「성수 메이커 스페이스」를 혁신적 IoT 창업가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메이커의 상주하에 인력 확대를 위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건국대, 한양대, 세종대 등 인근 대학의 창업지원단 및 산학협력 부서와 연계해 대학생 하드웨어창업을 위한 제작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센터 내에 IoT관련 입주기업, 서울앱창업센터의 앱개발자, 메이커들이 함께 생활밀착형 소품들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수 메이커 스페이스」는 학생·직장인 등 다양한 창작자 계층의 수요를 고려해 평일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며, 5인 이상 메이커 커뮤니티가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개방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회원가입 후 사용신청 하면되고, CNC 조각기·레이저 커터 등 대형 제작 장비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 예약과 더불어 장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www.wiz.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ZOOM IN | 02

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고위험층 찾아가는 피해상담실 운영

서울시가 바쁜 생계활동과 금융정보 부족 등으로 미등록 대부업자·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기 쉬운 고위험층(임대아파트 주민 등)을 직접 찾아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해준다.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29일(목)까지 11개 자치구 14개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의 주된 피해계층이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생업활동 때문에 구제센터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나 예방교육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피해상황을 듣고, 채무조정 관련 상담 등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줄 계획이다.

**전문상담사·변호사가
직접 상담,
추석전후에는
오후 6시 이후
야간상담도 실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SH공사가 함께 운영하며 전문상담사 및 변호사 등 3명의 상담인력을 배치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구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 피해구제기관과 연계해주는 역할도 한다.

피해상담은 ▲무등록 불법 고금리사채업과 법정이율(최고 연 34.9%) 초과 행위 ▲협박·폭행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대부업법 위반과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은 물론 실제생활에서 필요한 '가계재무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채무조정상담' 등도 함께 실시한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인근거주 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며, 약 2개월간 시범 실시 후에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상담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02-2133-5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12월까지 서울 곳곳에서 사회적경제 장터 개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사회적기업 제품을 알리고,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는 판로를 개척해주는 '사회적경제 장터'를 12월까지 시내 곳곳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사회적경제 장터에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함께누리(hknuri.co.kr)' 입점제품은 물론, 청년창업·소셜벤처의 독창성 있는 수공예품, 액세서리, 생활소품, 의류, 웰빙 먹거리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제품들을 선보인다.

참신한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부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조언과 실무적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자리도 마련했다.

**청계광장, 덕수궁 돌담길,
신촌 연세로, 잠실역 등의
도심 속에서 12월까지
장터 개최**

먼저 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사회적경제 장터인 <청계광장 사회적경제장터>는 △10.22.(목)~10.25.(일) △12.24.(목)~12.27.(일)에 열린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동교회 앞 원형분수대까지 거리가 310m인 돌담길에서는 △10.16.(금)~10.18.(일) △11.6.(금)~11.8.(일) 50여개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덕수궁 페어샵>이 열린다.

젊은이들의 왕래가 많은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도 10.25.(일), 11.8.(일)에 50여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하는 <신촌 풀장>이 열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지하광장에서는 10.9.(금)~10.11.(일), 10.16.(금)~10.18.(일), 11.13.(금)~11.15.(일), 11.20.(금)~11.22.(일)에 50여 개 사회적경제 기업·청년소셜벤처 등이 참여하는 <잠실 풀장>이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3호선 학여울역 SETEC 전시장에선 11. 6.(금)~8.(일)에 50여 개 함께누리몰 입점기업이 참여하는 <SETEC 사회적경제 장터>가 열린다.

HOT ISSUE | 02

한강의 밤이 달라진다... 10월 한 달간 주말 야시장 개장

10월 주말, 한강의 밤이 달라진다.

서울시는 서울의 상징 한강에서 10.1(목), 10.2(금), 10.8(목), 10.10(토), 10.16(금), 10.17(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밤 도깨비 야시장」을 개최한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 밤 도깨비 야시장」은 전국에서 모인 푸드트럭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먹거리부터 생활 소품·아트상품·핸드크래프트상품 등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상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신개념 서울형 야시장이다.



**다양한 음식의
푸드트럭,
아이디어·수공예품
판매, 시민참여
벼룩시장도 열려**

이번 야 시장은 '돌아다니며', '즐기고', '함께 참여하고', '나누자'는 의미의 동(動), 호(好), 여(與), 락(樂)의 4가지로 구성되는데, 먼저 <동(動)시장>은 개성 있는 푸드트럭으로 이뤄진 음식장터이다. 이곳에서는 파스타, 퓨러스 등의 트렌디한 외국음식부터 닭꼬치, 김치볶음밥 등 한국적인 음식까지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들을 선보인다.

<호(好)시장>은 전문상인들을 위한 마당으로 △패션 △생활용 공예품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을 비롯해 최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업사이클링 등 80여 개의 부스에서 아이디어 상품들을 판매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인이 될 수 있는 참여형 벼룩시장인 <여(與)시장>은 사전에 신청한 시민들이 핸드메이드 상품이나 빈티지 제품 등 자신만의 제품을 선보이는 마당이다. 즐거운 장터극장인 <락(樂)시장>은 야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메인무대에서는 댄스공연을 비롯해 악기연주 무대가 펼쳐지며 그 외 한강공원 곳곳에서는 서커스와 천막극장, 인디밴드의 버스킹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 밤 도깨비 야시장」이 시민들에게는 색다른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청년상인, 예술가들에게는 교류와 활동의 공간역할을 하는 서울의 대표 야시장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